고위층 종용에 사태진화?

■ 허위학력 폭로 장윤 스님 오락가락 행보 의혹

한갑수 이사장에 신정아씨 감독직 유지 부탁
오영교 총장 '변양균 실장 관련설' 전면 부인

오영교 동국대 총장이 27일 오전 동국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사직서를 들어보이며 일부 언론의 사표 반려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맨 처음 '가짜박사' 의혹을 제기했던 장윤 스님이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에 선임된 직후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엔날레 감독직 유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학위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장윤 스님의 이같은 통화 내용이 사실일 경우 어떤 이유로 장윤 스님이 신씨에 대해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갑수 전 이사장은 2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7~8일께 장윤 스님이 전화를 걸어와 '(신씨가) 비엔날레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장윤 스님에게 학력을 위조한 사람은 '인격 파탄자'이기 때문에 감독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사장인 내가 처리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당시 통화내용을 설명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장윤 스님과 한전 이사장간 통화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4일 전인 지난달 4일 신씨를 공동예술감독에 선임했었다. 장윤 스님이 한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언론에서 신씨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던 때여서 그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윤 스님이 1~2일 간격을 두고 이뤄진 한 전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신씨를 두둔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 심경 변화를 일으킬 만한 중대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윤 스님이 신씨를 비호하는 누군가로부터 '신씨가 비엔날레 감독으로 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종용을 받은 뒤 사태진화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신정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윤 스님이 신씨에 대한 인간적 부담감 때문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장윤 스님은 신씨의 학위위조 논란이 제기됐던 지난달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동국대에 사표를 제출한 만큼) 젊은 나이인 신씨가 비엔날레 감독을 맡은 것까지 문제삼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기자가 27일 한 전 이사장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장윤 스님과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오영교 동국대 총장은 27일 신씨의 가짜 학위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관련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대학 동문과 참여정부 근무 등을 들며 변 실장과 연결시키려 하는데 한국사회에서 한 두 가지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신씨 사건과 관련해) 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정아씨 BMW 실제주인은 조계종 스님

학력 위조가 들통나 파면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몰고 다니던 BMW 승용차의 소유주 명의는 조계종 승려인 것으로 확인돼 궁금증을 낳고 있다.

27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동국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정아씨가 2005년 동국대 조교수 임용 당시 학교에 등록하고 몰고 다녔던 BMW 325i 승용차의 소유주 명의는 조계종 소속 D(58)스님으로 밝혀졌다.

D스님은 신씨의 고향인 경북 청송군에 있는 B사찰 주지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맡았으나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B사찰은 조계종 소속인 대구 D사의 말사(末寺)이다.

그 동안 이 차량은 신씨의 어머니가 사 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신씨 어머니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줄곧 이렇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신씨나 가족이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 대신 지인의 이름으로 차를 등록했거나 신씨 배후의 인사가 돈을 대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질석방 '대면접촉' 곧 재개

아프간 피랍 사태 최대 고비 될 듯… 탈레반, 여성 우선 석방 검토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한국 측과 탈레반의 협상이 합의점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 인질들을 우선 석방하는 방안 등이 탈레반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아프간 현지의 소식통은 27일 오전(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간접통화에서 "며칠 내로 인질 석방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양측이 석방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질의 안전 때문에 협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한다면서 "우선 여성 인질들을 라마단(이슬람의 금식월) 전에 석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측과 탈레반, 탈레반 내부에서 이를 놓고 작은 이견이 있는데 심각한 것은 아니고 곧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 측은 인질 19명 전원을 일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탈레반 측은 '여성 선(先)석방-남성 후(後)석방' 및 세부적 석방 조건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질 석방은 지역 탈레반의 소관이지만 남성인질 석방은 중앙의 탈레반 지도자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탈레반이 더는 인질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 대신 '협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예전과 같은 추가 살해위협, 협상 시한 설정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편 한국 대표단과 탈레반측 사이의 대면접촉이 금명간 개최될 예정이어서 인질석방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어제(26일) 오후 탈레반측과 대면접촉을 하려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조만간 대면접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탈레반과의 4차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5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아랍권 주도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태 해결과 관련한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최악 산불 '火魔' 휩싸인 그리스

문화 유적지 보호 안간힘… 국제사회 긴급지원 나서

그리스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국토의 절반 가량이 불에 타고 사망자가 6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적지 내 고대 올림픽 발상지와 부속박물관 등은 26일 현재(현지시각)까지 화마(火魔)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잇따라 긴급 지원에 나섰다.

크리스토스 자호포울로스 문화부 사무총장은 26일 그리스 최대의 문화유적지 인근에 있는 올림피아 마을까지 불길이 접근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 "화재방지 설비들이 예상대로 작동해 올림픽 유적지에 딸린 고대박물관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길은 고대 올림픽 발상지까지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부속 박물관의 유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놓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올림픽 유적지 인근까지 불길이 접근했으며 박물관에 딸린 정원 일부가 그을렸다고 밝혔다.

소방대측은 비행기 6대와 헬리콥터 2대, 소방차 15대 및 45명의 소방대원들이 올림픽 유적지 보호를 위한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그리스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최소 63명의 사망자를 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재난이 대부분 방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65세의 남성과 두 청년 등 아르에오폴리스 지역에서 방화범들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또한 방화범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 유로(136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지난 24일부터 급격히 번지기 시작한 산불은 1천여명의 군인과 소방대원이 긴급 투입되고, 유럽연합(EU) 내 12개국이 지원에 나섰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니코스 디아만디스 보건부 대변인은 "산불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태우고 있다"며, 그리스에서 전례없는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아테네 AFP=연합뉴스